

中, 신중국 건국 70주년 대대적 행사 돌입

시진핑 지도부 총출동 헌화 역대 최대 열병식·퍼레이드 김정은 위원장 방중 여부 주목

중국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하면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자국의 국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장기화로 흔들리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다잡고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2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9일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

京) 인민대회장에서 신중국 70주년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시상식을 했다. 쿠바 공산당 총서기인 라울 카스트로에게도 우호 훈장을 주면서 신중국 70주년의 권위를 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시상식에서 중국인들에게 영웅이 되라면서 충성과 집념, 헌신을 강조했고 '두 개의 100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부르짖었다.

이날 오후에는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신중국 건국 70주년 대형 문예 공연 '분투하라 중화 아들딸아'를 관람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여자 배구 월드컵 우승에 축전을 보내 "중국 여자 배구팀은 경기에서 강팀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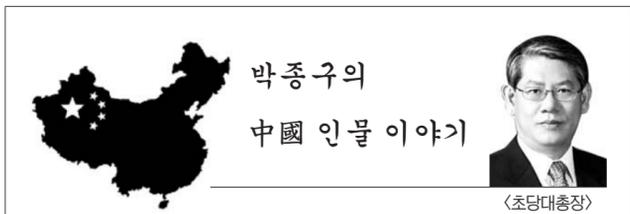
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경기에 여자 배구 정신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30일 오전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사 기념일을 맞아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헌화식을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이날 헌화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헌화한 뒤 열사 기념탑을 둘러보며 선열을 추모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중국 창건을 이끈 마오쩌둥(1893~1976) 전 국가 주석 기념관도 방문해 마오 전 주석의 동상을 향해 참배했다. 마오 전 주석의 기념당 참배는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지도부와 중국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 축하 리셉션에 시 주석 등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게 된다.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시민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을 통해 중국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매체들은 매일 열병식 준비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텐안먼 열병식에는 장병 1만5천명, 군용기 160대, 관련 장비 580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동풍(東風)DF-41 등 중국의 첨단 무기를 대거 선보여 미국에 맞먹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위용을 과시할 전망이다.

10월 1일 저녁에는 텐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와 더불어 불꽃놀이가 이뤄지면서 신중국 건국 70주년 축제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0〉 조보

조보(趙普, 922~992)의 자는 칩평으로 유주 계현 사람이다. 태조 조광운을 도와 북송 건국에 공헌했다. 태조 조광운 때 두 차례 재상을 지내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조광운이 후주의 군관으로 활약할 때 인연을 맺었다. 후주의 세종 시영이 천하통일 사업의 일환으로 남당을 공격할 때 조광운의 부친 조홍은도 출정했는데 과로로 사망하였다. 군사판관으로 파견된 조보가 조홍은을 돌봐준 일을 계기로 친교를 맺게 되었다. 959년 세종이 급사하자 7세 아들이 뒤를 이었다. 조보는 조광운의 동생 조광의 등과 짜고 수도 개봉 주변 진교에서 조광운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어린 황제에 불안을 느낀 군부, 관료 집단이 합

을 행사할 수 없었다. 중앙에서 통판(通判)을 직접 파견해 전국 업무를 담당하고 토지세와 소금세 등 징세 업무를 전운사가 담당토록 해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켰다. 경찰 업무도 중앙에서 내보낸 현위(縣尉)가 담당토록 했다. 문관으로 지주(知州)를 삼아 문관 중심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태조 초기 숙위나 절진병권 폐지에도 깊이 관여했다. 왕조 초기 주요 제도나 조치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다.

최대 현안은 통일 사업의 방향이었다. 태조는 산서성 태원 공략에 관심이 있었다. 조보는 태원은 서쪽으로 서해에 북쪽으로 거란과 맞붙어 있어 태원 공략 시 양 나라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약한 남쪽 나라를 먼저 공략하는 선남후북

태조 조광운 도와 북송 건국에 공헌

작한 진교변(陳橋兵變)이었다. 960년 태조는 그를 우간의대부, 추밀직학사에 발탁했다. 태조의 즉위에 소의절도사 이균과 회남절도사 이종진이 반대했다. 조보는 두 세력을 진압하는데 종군했다. 송나라를 토벌하는 이균 등의 격문에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자가 적었다. 태조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전국을 통합해 나갔다. 병부侍郎, 추밀학사를 거쳐 962년 추밀사와 검교태보에 임명되었다.

건국 2년(964년) 범질이 사퇴하자 재상에 올랐다. 건국 초 태조와 조보는 안으로는 조정의 안정에 밖으로는 통일사업에 힘을 모았다. 그는 다른 조정 중신에 비해 학문이 다소 부족했다. 문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북송 재상으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반부는어치천하(半部治天下) 논어의 절반만 읽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풍부한 경험과 경륜으로 무장한 조보의 자신감을 표현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정권 초기 태조 옹립에 공을 세운 장군들의 군권을 약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권 장악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술잔을 돌려 병권을 해제했다"는 의미의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을 통해 중앙군인 금군(禁軍)의 힘을 키웠다. 장군들은 지방의 절도사로 나갔지만 당나라때 같은 막강한 권한

(先南後北) 전략을 채택했다. 전국의 통일은 다음대인 태종때 완성되었다. 성격이 집요해 한번 시도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은 황제에게 사함을 추천했는데 가납치 않았다. 이틀 날 못 청하니 황제가 노해 서류를 찢어 버렸다. 조보는 찢어진 서류를 풀로 붙여 다시 올렸다. 태조가 결국 승인하였다. 공을 세운 신하를 승진시키는 안을 올렸지만 태조가 개인적으로 싫어해 허락하지 않았다. 계속된 요청에 황제는 "내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소"라고 하문했다. 조보는 답하기를 "상벌은 공평해야 하거늘 황제의 감정에 사사로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태조는 승진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사를 다른 중신들과 깊이 상의하지 않았다. 황제에게 올리는 글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커다란 독속에 처넣고 태워버렸다.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척 처신으로 많은 중신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태조 말년 황제의 신임을 잃고 재상 직위에서 파면되어 하양 삼성절도사로 나갔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하자 다시 불사조처럼 재상직에 복귀해 정사를 좌지우지하였다. 992년 71세로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조보는 정사를 과감성 있게 결단하였다. 진정을 기웠다. 장군들은 지방의 절도사로 나갔지만 당나라때 같은 막강한 권한



홍콩 우산혁명 5주년 격렬 시위 '우산 혁명' 5주년 이틀째를 맞은 29일 홍콩 도심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생명체 곧 확인될지만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 안 돼” NASA 수석 과학자 경고

인류는 2021년 중반쯤엔 화성에 보낸 로버를 통해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지만 외계 생명체 존재가 확인됐을 때 갖는 혁명적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수석 과학자가 경고했다.

NASA와 유럽우주국(ESA)이 나란히 발사할 화성 탐사 로버 '마즈(Mars 2020)'와 '엑소마스(ExoMars)' 프로젝트에 핵심 역할을 해온 NASA 수석과학자 짐 그린 박사는 29일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와의 회견에서 두 로버가 생명체 탐사에 답을 해줄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

두 로버는 내년 7~8월에 발사돼 마즈 2020은 이듬해 2월, 엑소마스는 3월에 화성에 도착한다. 특히 영국 화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 '로잘린드'로도 불리는 엑소마스는 2m가량 땅을 파고 샘플을 채취한 로버에 탑재된 장비로 유기물 존재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착륙 후 수 주에서 몇 달 안에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즈2020도 화성의 생명체 탐사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어, 두 로버가 2021년 여름께 경쟁적으로 생명체 탐사 결과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린 박사는 과거엔 현재 생명체 존재가 확인되면 "혁명적인 것"이라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처럼 사고를 완전히 비틀거릴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결과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발표해야 할 시점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크라 스캔들’ 트럼프 “날 고발한 내부고발자 만나야겠다”

“정상간 통화 부정확한 묘사” 시프 하원 위원장도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을 행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한 당사자인 미 정보당국의 내부고발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연달아 올린 글에서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고발한 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면서 “특히 이른바 ‘내부고발자’라고 불리는 그자가(내가) 외국 정상과 나눈 대화를 완전히 부정확하고 사기성이 짙은 방식으로 묘사했기에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자신이 실제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내 의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시프 위원장)의 거짓말은 의회에서 나온 거짓말 중 가장 뻔뻔하고 사악한” 수준일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시프 위원장이” 사기 및 반역죄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심문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져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설명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검찰관에게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를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남성 당국자”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오늘조회: 5	2주누적: 207	2주평균: 15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구분	임원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토지면적	19835㎡(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1차	2019-09-02	1,712,816,000원	유찰
건물면적		보통금	(10%) 119,900,000원	2차	2019-10-14	1,198,971,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 (감정원: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2018.11.29)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합계		토지:19835㎡(6000.088평)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